



실움 광!

볼티모어 김현수 ML 첫 홈런...5경기 연속 선발 활약

“벤치서도 자신감 충전...결승타로 승리 기여 기쁘다”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쏘아 올린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무엇보다 팀 승리에 기여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볼티모어 구단 홈페이지는 30일 김현수의 홈런 소식과 인터뷰 내용을 메인 화면에 실었다.

김현수는 이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방문경기에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4로 맞선 7회초 비거리 115m의 우월

솔로포를 폭발했다. 김현수의 메이저리그 1호 홈런이다. 볼티모어가 리드를 지키면서 김현수의 홈런은 결승타로 기록됐다.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 나선 김현수는 “승패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홈런이 나왔어도 기분이 좋았을 텐데, 팀 승리에 기여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김현수는 “홈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콘택트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세계 치러

고 했다”고 돌아봤다.

이날 홈런이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그가 시즌 초반 겪은 실움 때문이다. ‘한국산 타격 기계’ 김현수는 올 시즌 시범경기에서 KBO리그와는 수준이 다른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상대로 매우 고전했다.

벽 쇼월터 볼티모어 감독은 김현수에게 마이너리그행을 권유했고, 구단은 ‘한국 복귀설’까지 흘러가며 김현수를 압박했다.

김현수는 계약 조건에 포함된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행사해 메이저리그에 남았지만, 시즌 초반 철저히 외면당하며 백업 외야수로 밀렸다.

하지만 제한된 출전 기회에서도 기대 이상의 타격감을 유지하며 눈도장을 받았고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끝에 이날 대포를 쏘아 올려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다.

김현수는 시즌 초반 출전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 “내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면서 “언제든 나가면 잘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볼 때의 심정에 대해서는 “벤치에 있을 때도 자신감 충전했고, 지금도 자신 있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현수는 “선발로 출전하게 되니 경기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매 경기 선발 라인업에 들 것이라는 마음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솔로포를 터뜨린 김

현수가 더그아웃으로 돌아오자 동료들은 모르는 척하는 장난을 치다가 한순간 함성을 지르고 하이파이브를 치며 크게 환영했다.

김현수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장난을 친다. 동료들이 (장난을 멈추고) 반응을 보여줄 때까지 일부러 조용히 있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쇼월터 감독은 “김현수보다 팀 동료들이 더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 했다.

쇼월터 감독은 구단이 김현수의 홈런 공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마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외야 관중한테서 공을 남겨보았을 것”이라며 “지금 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LB 김현수 시즌 1호 홈런
30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

솔로 홈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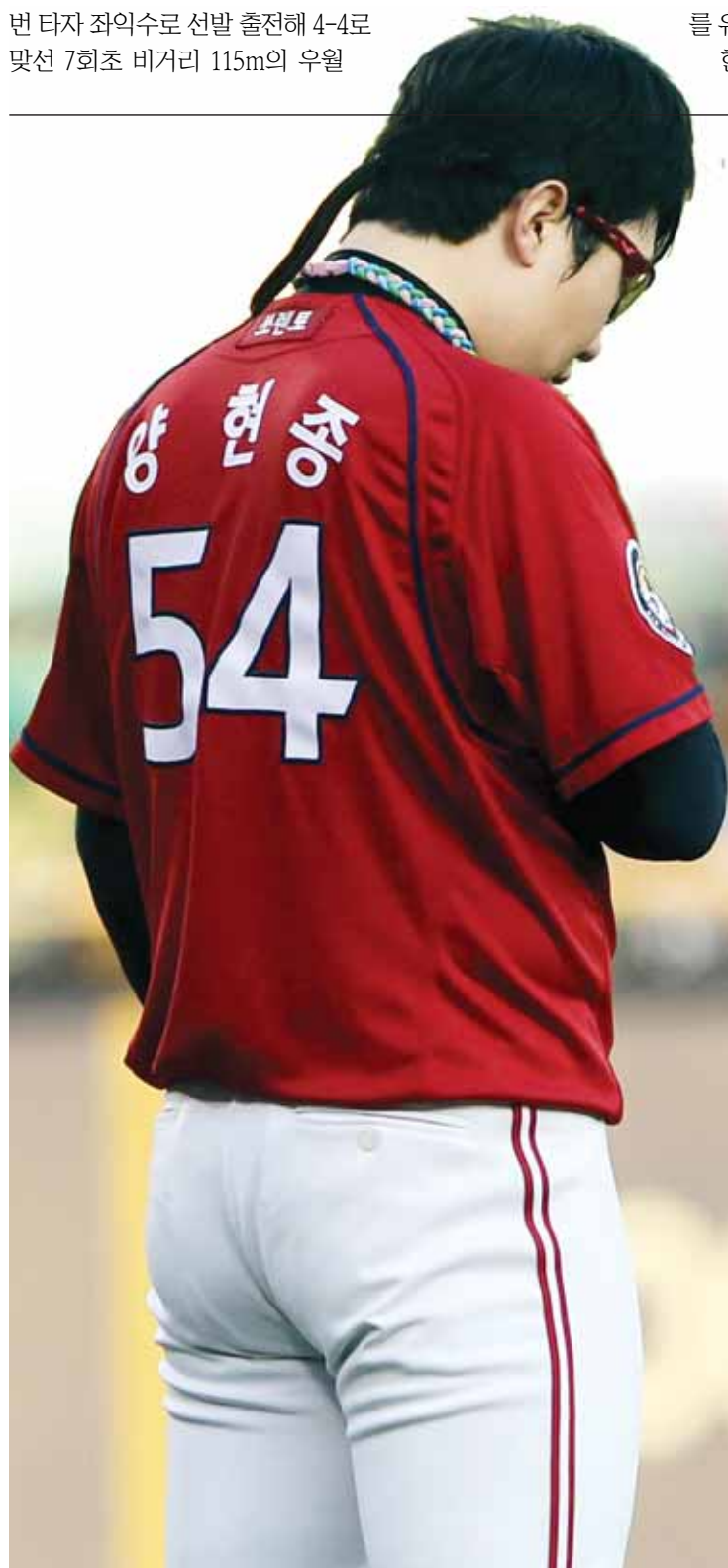
투수 제프 번스

7회초 4:4 상황

B S O

김현수 (28·볼티모어 오리올스)

/연합뉴스



너털너털 KIA “현종아 살려줘”

양현종, LG·넥센전 두차례 등판...명예회복 벌러

‘명예 회복’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KIA 타이거즈의 키워드다.

KIA 타이거즈는 주중 잠실로 가 LG 트윈스와 경기를 갖고 주말에는 안방에서 넥센 히어로즈와 상대한다. 만나기만 하면 잘 풀리지 않는 두 팀과의 경기,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는 LG와 징크스를 깨지 못한 넥센과의 승부이기도 하다.

양현종의 어깨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명예 회복’을 외치며 양현종이 가장 먼저 어깨를 푼다. KIA와 LG는 지난 4월 1일 시즌 첫 대결을 벌였다. 두 팀은 우천으로 한 경기를 쉬었고 1승1패를 주고받았다. 4월이 가고 5월이 끝나도록 만나지 못했던 상대와의 재회, 양현종이 가장 먼저 나선다.

‘에이스’라는 호칭이 씩스러운 양현종이다. 양현종은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1승을 신고하는데 그쳤다. 지난 13일 한화전에서 7전8기 끝에 어렵게 첫 승을 신고했지만 이후 2연패다. 내용과 결과 모두 좋지 못했다. 두산 원정에서는 제 5회도 버티지 못하고 4.2이닝 7피안타(1피홈런) 2볼넷 5탈삼진 7실점의 최악의 피정을 남겼고, 삼성 원정에서도 6이닝 6피안타(1피홈런) 3볼넷 3탈삼진 6실점(5자책)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평균자책점은 4.21까지 뛰어들었다.

무엇보다 팀의 득점 이후 실점 패턴을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팀은 양현종이 나온 10경기에서 1승9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즌 승리를 불렀던

양현종은 올 시즌에는 ‘패배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 FA(자유계약)를 앞두고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양현종은 5월 마지막 경기에서 반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로테이션상으로도 양현종은 넥센과의 마지막 경기까지 책임져야 한다. 양현종은 물론 KIA에게도 ‘명예회복’을 위해 꼭 잡고 싶은 시리즈다. 여전한 징크스에 속이 탄다.

4월 15일 첫 대결에서는 김주찬의 사이클링 히트를 앞세워 11-6으로 이기며 넥센 열세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지만 비로 하루 선 뒤 벌인 경기에서는 윤석민의 1-2 완투패가 쓰여졌다. 이후 윤석민은 어깨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고 마운드의 돌러막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1일 처음 고척돔으로 간 KIA는 시즌 첫 싹쓸이 패를 당했다. 1승4패, 올해도 넥센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방에서의 싹쓸이 패도 마음에 걸린다. KIA는 지난 주말 또 다른 천적인 NC와의 홈경기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했다. 원정 열세, 홈 강세의 패턴을 깨고 안방에서 최악의 시리즈를 남겼다. KIA는 지난해 1승에 대한 간절함으로 애타는 가을을 보냈다. 지독한 열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올 가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1승의 간절함과 명예회복의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보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연재 곤봉 金...전 종목 메달 수확

손연재(22·연세대)가 올 시즌 4번째 출전한 월드컵에서 풍성한 성과를 내며 다가올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손연재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의 아레나 아미츠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마지막 날, 종목별 결선 곤봉에서 18.550점으로 금메달을 수확하는 기염을 토했다.

은메달은 우크라이나의 에이스이자 손연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간나 리자르디노바(18.450점)가 차지했다. 동메달은 ‘러시아의 신성’ 아리나 아베리나(18.300점)가 가져갔다.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세계 최강자 야나 쿠드랴체바(러시아)는 곤봉을 떨어트리는 큰 실수 탓에 18.250점에 그쳐 4위로 밀려났다. 손연재가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2월 26~28일 에스포 월드컵에서 볼 금메달을 따낸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비록 다른 선수들의 실수 덕을 보긴 했으나 손연재는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다투게 될 세계 최강자들의 탐바구니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자신감을 쌓았다. 지난 1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선수권에서 전관왕에 오른 손연재는 이후 타슈켄트 월드컵(13~15일)과 민스크 월드컵(20~22일)에 불참했다. 두 대회를 건너뛰며 체력을 비축한 손연재는 이번 소피아 월드컵에서 힘이 넘치고 정확한 연기로 표현력을 극대화해 끌어올렸다. 그 결과 손연재는 앞서 27~28일 개인종합에서 자신의 역대 최고 점수인 74.200점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종목별 결선에서는 곤봉 금메달을 비롯해 후프(18.650점)와 리본(18.450점)에서 나란히 은메달, 볼(18.550점)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손연재는 올 시즌 출전한 4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메달 행진을 벌였다. 특히 이번 소피아 월드컵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며 리우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일부 종목에서는 18.600점대를 넘어서며 빠른 성장세를 확인한 점도 소득이다.

/연합뉴스